

## ‘교회사회복지실천의 도전과 한계’에 대한 토론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회사회복지실천의 도전과 한계’는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교회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하는 글입니다. 저자가 앞부분에서 정리한 교회사회복지의 네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준 감출 수 없는 허물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사회복지의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비리,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회복지와 전도의 가치충돌, 지역사회에 기대 부응 실패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 지적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는 한편 극히 일부 교회의 사례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많고 적음이 핵심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는 여전히 이웃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타적인 조직이며, 세상적인 일탈이 적은 건강한 조직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특수성을 인정하고 세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대해 억울해하기보다는 교회가 아직까지 세상과 구별되는 조직이라는 인식과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교회가 풍부한 물질,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참여를 주장하는 기존의 제안과 언뜻 유사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이 기존의 주장과 다른 점은 교회의 단독적인 사회복지사업대신 공공 또는 민간과의 협력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회사회복지사업을 상징하는 개별 교회의 중심의 독립적인 사회복지활동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의미있는 제안입니다.

특히 이러한 제안은 인적, 물질 자원의 제한으로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독립적이며, 조직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대다수 중소형 교회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교회가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면 저자가 지적하신대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더욱 부각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한 제고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몇몇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유효한 교회사회복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간 협력입니다. 그동안 교회사회복지는 대부분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교회가 협력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에 협력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교회들은 협력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회가 협력적인 사회복지실천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공,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며 마지막에 다시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